

낭창성신염에서 Mycophenolate mofetil과 Prednisolone의 병합치료효과

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
진은선, 임천규, 김희진, 이태원, 김명재

서론 ; 낭창성신염은 프레드니솔론(PDL)과 세포독성약제의 병용으로 치료되어 왔고 Mycophenolate mofetil(MPM) 역시 근래 시도되고있는 약제이다. 낭창성신염환자에서 PDL과 MPM의 병합치료를 실시하여 단백질뇨의 현저한 감소효과를 보았고 이를 사이클로스포린 A(CyA)와 PDL의 병합치료효과와 비교하였던 증례를 보고하고자한다.

증례 ; 신생검상 막성 낭창성신염으로 진단된 신증후군을 보이는 32세 여자환자.

투여약제(mg)	(초기검사)	MPM+PDL 500		MPM+PDL 10		PDL 10	CyA+PDL 200 10	MPM+PDL 1000 10	MPM+PDL 1000 10
		2Mo	5Mo	1Mo	1Mo	1Mo	2Mo		
치료기간		2Mo	5Mo	1Mo	1Mo	1Mo	2Mo		
24시간요단백(g/day)	9.8	3.1	2.5	4.6	2.3	2.0	2.7		
혈청 Cr(mg/dL)	0.5		0.8		0.5	0.5			
혈청 알부민(g/dL)	2.5		3.0		3.7				
혈청콜레스테롤(mg/dL)	258		306		240	176			
백혈구(개/mm ³)	7,200		11,300						
Hb(g/dL)	12.3		14.7						
혈소판(개/mm ³)	469K		510K						

결론 ; 본 막성 낭창성신염 환자에서 PDL과 MPM의 병합요법이 단백질뇨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CyA와 PDL의 병합요법 효과와 유사하였다.

염증성 싸이토카인 및 Lipopolysaccharide가 인근위세뇨관상피세포의 Fas system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

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신장병 연구소*
조상경, 윤종우, 차대룡, 조원용, 김형규, 윤수영*, 장경현*

서론:그람 음성균에 의한 패혈증, 심한 외상, 해장염등에 동반되는 다장기부전시 흔히 동반되는 급성 신부전의 기전은 신혈류의 감소로 인한 전신성 요인(prerenal factor)외에 전신성 염증반응중후군에 동반되는 다양한 요인, 즉 면역계, 응고계의 활성화 및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생성등이 관여할것으로 생각된다. 저자는 염증성 싸이토카인이나 그람 음성 세균의 LPS가 직접적으로 신세뇨관상피세포 독성을 가짐으로서 다장기부전시 동반되는 신기능부전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이 배양된 신세뇨관상피세포의 Fas system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. **방법**:인근위세뇨관상피세포를 배양하여 각각 TNF- α 를 5, 30, 50ng/ml, IL-1 β 를 5, 20ng/ml로 주입한군 및 LPS를 10ng/ml주입한 군으로 나누어 24시간 배양한후, 이를 배양액만 주입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Fas유전자 발현 및 FasL 단백질에 대한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. **결과**:인근위세뇨관상피세포의 Fas유전자 발현은 (ratio of Fas/L-19) 대조군의 0.28 ± 0.06 에 비해 TNF- α 5, 30ng/ml 투여군에서 각각 0.85 ± 0.21 , 0.95 ± 0.09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($p < 0.01$, $p < 0.01$), LPS 투여군에서도 0.76 ± 0.27 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($p = 0.04$). FasL단백 발현은 TNF- α 5, 30, 50ng/ml 투여군에서 각각 2547.3 ± 366.2 DI(densitometric index), 3725.3 ± 192.8 DI, 2154.3 ± 37.4 DI로 대조군의 2077.5 ± 63.5 DI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($p = 0.05$, $p < 0.01$, $p < 0.01$), IL-1 β 투여의 경우도 각각 5, 20ng/ml에서 3291.7 ± 612 DI, 3354.3 ± 310.3 DI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($p < 0.01$, $p < 0.01$). LPS주입군의 경우도 FasL 단백질발현은 2670.7 ± 359.7 DI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($p = 0.02$). **결론**:전신성 염증반응중후군에서 증가되는 염증성 싸이토카인 및 그람음성 세균의 LPS는 직접적으로 신세뇨관상피세포의 Fas 및 FasL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서 아포프토시스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으며, 이는 다장기부전에 동반되는 신기능부전의 한 기전으로 작용할수 있겠다.